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주 등록교우 : 박해석 집사(카자흐 목장), 탁금란 집사(한나 목장), 조영숙 집사(헬시바목장), 박미란 자매(엘리목장)
3. 2019년도 '후반기 세례자(입교자 포함)'을 위한 양육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9/21) 청소담당은 몽골목장(신태식 장로)이며, 다음 주일(9/22) 식사담당은 아가페목장(김경미 권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월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상 3권입니다. 2층 예방 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9월 15일	9월 22일	9월 29일	10월 6일
예배기도(오전)	박성대 집사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이강정 집사
예배기도(오후)	신경미 권사	강숙여 권사	오승연 권사	박숙이 권사
주일식사담당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토요일청소	네팔목장 (9/14)	몽골목장 (9/21)	카자흐목장 (9/28)	감보디아목장 (10/5)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마을(장터, 마트) 전도'를 위해서
2. 2019년도에 세워진 남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한안) 사역지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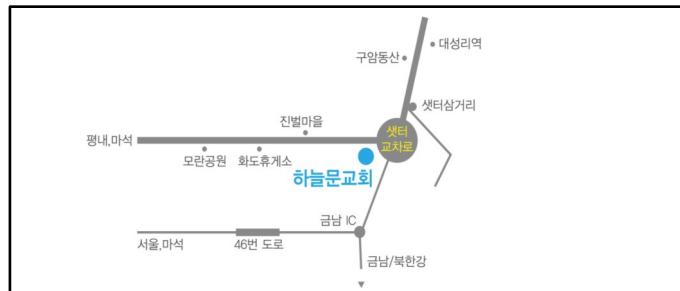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김
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66번(시편 151편)	다같이
*경배찬송 20장(통 21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84장 (통 206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성대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시 16:1-11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주 밖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주님 말씀하시면'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단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아도나이 찬양팀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391장(통 446장)	다같이
기도 신경미 권사	
성경봉독 삼상 27:8-12	인도자
특별찬양 누구든지	
설교 '거짓말과 나뭇잎 옷'	김묘상 목사
기도 김묘상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210장(통 245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19:31-42 '십자가의 능력'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관념'(97)

새벽기도회 새벽 5:30 성령강림절후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데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가치 때문이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류는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 때문에 보물로 인정을 받는다. 존경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에게 온화한 성품이나, 탁월한 실력, 특별한 재능 같은 비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고귀한 용도 때문이다. 어떻게 쓰이는 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비록 그 가치가 대단하지 않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에 따라 귀한 취급을 받기도 한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 오병이여의 기적을 제공했던 한 아이의 도시락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그 물건이 소유자 때문이다. 비록 하찮은 물건이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확연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옛 팝의 황제였던 마이클 잭슨이 생전 공연 때 사용했던 장갑도 경매에 나와 고가에 팔리기도 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를 잘 말해 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구속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특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미하는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기도 하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보통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브랜드’를 붙여 주셨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브랜드가 있을까?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고귀한 존재인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를 감당해야 한다. 하나는 나 자신의 존귀함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 안에 지니고, 스스로를 더욱 가치 있게 하며,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쓰임 받으면서 특별 소유된 자로 살아가게 한다. 이는 곧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사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위로부터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자신의 진짜 가치를 느껴보자.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 보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올바른 삶의 길이다.

Written by 허영진